무안군-무안군약사회, 생명사랑약국 업무협약 체결

관내약국 10곳 지정…자살예방홍보 공동 협력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자가 검진키트 배부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지역 내 약국들과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지역약국 생명지킴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약국 10곳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약국들은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자살예방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지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자살예방 홍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사랑 약국사업은 약국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의 중요성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살 위험약물과 복용관리 등 약물학적 중재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협약 체결과 함께 각 생명사랑약국에 마음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검진 키트도 배부해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직접 마음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이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생명사랑 실천가게 18곳, 농약안전보관함 2개 마을(55개소)을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살수단 차단사업도 함께 실시하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민재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지역 내 약국들과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지역약국 생명지킴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약국 10곳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무안군 제공

함평, 군민지원금 지급 개시

함평군이 이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13일 0시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 첫째 날인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공무원이 직접 마을경로당 270여 개소를 찾아가 지급한다.

경로당에서 지급받지 못한 군민은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은 공무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방역과 백신접종에 묵묵히 동참해 주셨던 모든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지원금이 5차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운 기자

영암,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영암군 특수형태 고용(이하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암군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4차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와 상반기 영암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공고일(2021.10.13.) 기준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공고일 13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영암군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군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지 회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신안 '치유의숲 조성' 사업비 70억원 확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

신안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시행하는 치유의숲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신안 임자도 치유의숲 조성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산림치유 기반을 확충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70억원이다.

대상지는 지도~임자 간 연륙·연도교가 금년 개통해 외부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임자도"이다. 숲과 바다의 음이온·피톤치드·천일염·해수 등 풍부한 치유인자를 활용해 산림생태 휴양문화와 관광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자도 치유의숲은 섬지역에 조성하는 해양형 치유의숲으로 바다와 숲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산책이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신안 천일염을 활용한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코로나와 인공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지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하는 미래 산림서비스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 2021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생산직·사무직·전기안전기술자·조리사 등 모집

목포시가 최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취업의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등록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분산해 현장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동영상 녹화를 통한 비대면 간접면접을 병행했다.

현장면접을 실시한 6개 기업과 간접면접을 실시한 14개 기업은 생산직, 사무직, 전기안전기술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직자를 모집했다.

구직자 177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75명이 현장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12명의 채용을 확정했으며 67명(현장 25명, 간접 42명)은 앞으로 채용하거나 2차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 구직활동을 도왔으며 VR가상면접 체험, 지문적성검사 등의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박성태 기자

강진,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강진군은 상반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1대 공급에 이어 4차 추경에 1억 3천 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달부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5대를 추가 공급한다.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는 기름 대신 전기모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이 절감돼 유지비가 일반동력차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저소음·저진동·무매연으로 운반작업이 가능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운반차를 구입한 모든 농업인은 사전에 작동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형전기운반차 1대당 550만 원으로 도비 15%, 군비 55%를 지원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전운재 기자